

우리 전기물, 아직도 갈 길 멀다

정치가 · 독립운동가 일색에서 벗어나... 독자들은 무관심

외국 인물의 전기 출간이 활기를 띤다. 그러나 그 부산한 움직임이 국내 인물의 전기 출간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모양이다. 새롭게 시리즈를 기획한다거나 출간을 기다리고 있는 주목할 만한 성과물들을 찾기가 힘들다. “전기(傳記)는 없고 수기(手記)만 남친다”는 한 관계자의 말은 품격과 재미를 고루 갖춘 온전한 전기보다는 성공담만 쏟아지고 있는 우리의 출판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

근·현대 인물의 재조명 시리즈 많아

물론 국내 인물에 대한 전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형서점의 전기코너에는 국내인물을 다룬 굵직한 시리즈만도 여러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아일보사가 기획한 ‘근대인물한국사’. 독립운동 · 정치 · 사회 · 학술 · 문화 · 예술 등 6개 분야로 구한말부터 일제시대까지 살았던 인물 100인을 선정, 이들의 삶을 통해 한국 근대사를 재조명한다는 것이 기획의도였다. 이동녕 · 김옥균 · 유길준 · 최현배 · 염상섭 · 이광수 · 이준섭 등 현재까지 17명의 전기가 출간되었는데, 관계자는 “시장반응이 신통치 않아 현재는 중지된 상태”라고 밝힌다.

사계절(대표 김영중)이 펴낸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보는 우리시대의 인물이야기’도 93년에 기획, 현재 7권이 나와 있다. 신동엽 · 조영래 등 현대의 인물까지 포함하는 참신한 인물선정과 객관적인 서술을 특징으로 내세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기획은 뿌리깊은나무의 ‘민중자서전’. 80년대 초반, 제암리 학살 사건의 증인 전동례옹의 한평생을 그의 구술을 바탕으로 기록한 《두렁 바위에 흐르는 눈물》이 출간된 이후 최근 진도 당골 채정례씨의 《에이 편한 사람, 내가 나보고 그 래요》까지 모두 20권이 나와 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의 구술 자서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이 책들은 꾸준히 팔려 나가는데, 인물선정이 어렵고 제작비나 필자 문제도 수월치 않아 현재는 출간이 주춤한 상태다.

‘한국 현대인물 연구’ (창작과비평사)는 고급독자들을 겨냥한 전문 연구서의 성격이

강한 기획, 93년 1월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이 출간된 이후 김원봉 · 조봉암 · 이재유 등의 연구서가 나왔고, 현재 홍명희 · 이동휘 · 여운형 등에 대한 연구서도 준비중이다. “에당초 시장성은 기대하지 않고 만든 책이었고 저자들의 집필시간도 오래 걸려 책이 쉽게 출간되지는 않는다”는 게 신채용씨의 말이다.

이처럼 비교적 근년에 기획된 국내 인물에 대한 전기 시리즈들 대부분은 중단되거나 주춤한 상태. 여러가지 사정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조한 시장반응과 필진문제, 과도한 제작비 등이 주요 원인이다.

대형 기획 외에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전기들도 시장상황은 비슷한데, 개중에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굳혀 꾸준한 반응을 보이거나 출간 당시 집중적인 관심의 포화를 받은 책도 더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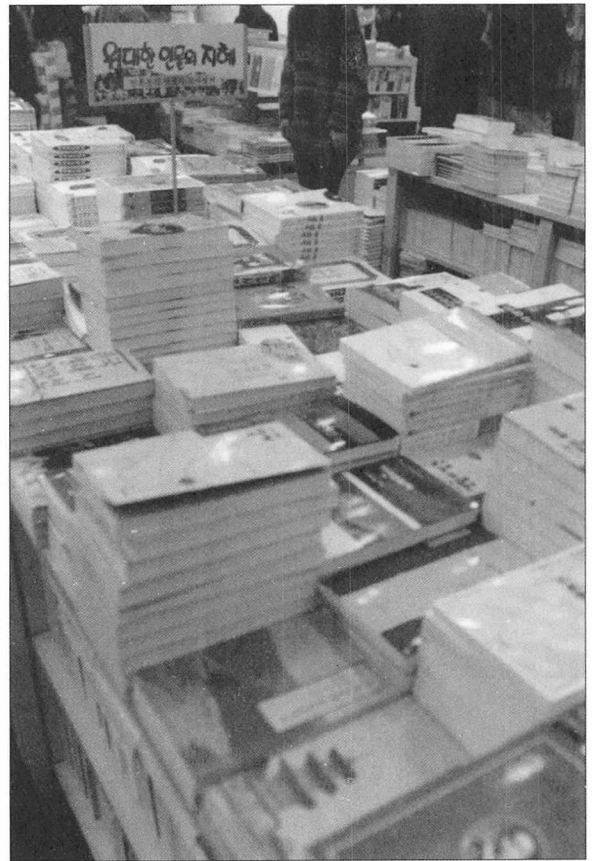
현재 전기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와 자서전. 전기의 경우 위대한 인물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서인지 대상 인물이 그다지 다양하지 않다. 박정희 · 이승만 · 김재규 · 신익희 등 정치가들의 전기가 많고, 이밖에는 윤봉길 · 안중근 · 안창호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전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자서전은 사정이 좀 낫다. 김구의 《백범일지》가 10여군데에서 나와 서가를 메우고 있고 한때 유행처럼 일었던 기업가들의 에세이적 자서전도 적지 않지만, 그밖에도 관심을 끌거나 의미가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자서전이나 자전예세이들이 적지 않게 나와 있다.

학병중이던 1944년 일본을 탈출, 중국으로 망명해 광복군으로 활약한 김문택씨의 자서전 《새벽으로 가는 길》(인하대출판부),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 여사의 구술 자서전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변창애 기록, 정우사), 문학평론가 김병걸씨의 《실패한 인생 실패한 문학》도 흥미와 감동이 남다른 책이다. 자서전 가운데 특히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끈 책은 리영희 교수의 《역정》(창작과비평사). “내 저서를 읽은 독자들에게 대한 도덕적 의무감”으로 청년시절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데, 거리낌없이 자신의 삶을

현재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전기들은 대상인물이 근·현대로 돌아오고 있고 객관적 자료에 충실한 사실기록을 중시한다. 그러나 여전히 전기코너는 서점의 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고 의욕적인 출판 기획들도 중도하차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전기물은 사상가 · 독립운동가 일색에서 조금씩 다양해지는 경향이다.



털어놓는 리영희 교수의 입담과 그의 삶이 증언하는 한국현대사를 되돌이키게 한다. 88년 초판이 나온 뒤 꾸준히 팔려나가 지난해 10월 7쇄, 3만부를 찍었다.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기도

세계사(대표 최선호)가 기획, 전3권으로 출판된 ‘장준하전집’ (세계사)의 첫째권인 《돌베개》는 비록 1944년부터 1945년까지 2년간의 수기이지만, 그의 전 인생을 관통한 민족정신과 저항정신의 뿌리를 확인하게 하는 귀중한 기록이다. ‘돌베개’는 일본 학병 탈출을 부인에게 알리기 위한 암호였다고, 92년에 초간, 8쇄를 찍었다. 장준하씨에 대한 기록은 전 사상계사 편집이사를 지냈던 박경수씨가 쓴 평전 《재야의 빛》(해돋이)도 있다.

전 고대총장 김준엽씨의 자서전 《장정》은 광복군시절과 총장시절로 나누어 모두 4권이 출간됐는데, 앞으로 70년대 그의 삶을 담은 ‘나의 교수시절’도 출간할 계획. 제목만큼 긴 생명력을 지니고 많은 독자들의 손길을 타는데 지난 85년 출간 이후 약 5만권이 팔렸다.

《아버지 팔봉 김기진과 나의 신앙》(김복희, 정우사) 《나의 아버지 김순남》(김세원,

나남출판), 《나의 아버지 이익수 장군》(이명순, 학인) 처럼 아버지를 회고하는 딸들의 알뜰한 정이 담겨 있는 등 회고록 역시 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얼마전 출간된 일석 이회승의 회고록 《딸각발이 선비의 일생》(창작과비평)이나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형국 교수가 장욱진 화백과의 18년간의 만남을 회고한 《그사람 장욱진》(김영사),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포항공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호길 박사의 삶을 주변 여러 사람들의 회고를 통해 재구성해놓은 《과학도 인간이 하는 겁니다》(한국문연)도 독자들의 손을 자주 타는 책이다.

현재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전기물들은 대상 인물이 근·현대로 돌아오고 있고 내용 또한 객관적 자료에 충실한 사실기록을 중시하고 있다. 대상 인물 또한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전히 전기코너는 서점의 가장 인기없는 코너이고, 의욕적인 기획들도 시장의 무반응에 중도하차하고 마는 현실은 우리 전기물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을 반증한다. “전기문학이 고급한 읽을거리로 정착하느냐의 여부는 그 사회의 교양과 지식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고 역설한 한 관계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박남정 기자